

렸습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울기만 했습니다. 실장은 겁이 나서 교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때 언니들을 ○○선생님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왜 경찰 아저씨들처럼 우리 선생님들을 반대하실까요?

교장 선생님은 방송 종업식을 하면서, 날씨가 무덥고 선생님 두 분 출장을 갔기 때문에 조기 방학한다고 의젓하게 말을 했지만, 애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우리 몰래 잘라 버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켈 착하시고 인기도 켈로 좋습니다. 졸업한 언니들도 그 선생님을 켈로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실력파고 정의파라서 저도 정말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옳은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굴까요?

이번 일로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데모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데모도 할 줄 모릅니다. 데모 노래라도 좀 배웠으면 시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데모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건데 남들은 혹시 우리가 선생님을 찬성 안에서 그런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더 알볼 것 같습니다. 오빠는 자기를 지키려고 태권도를 배운다는데, 난 선생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은 노태우 아저씨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해서 안 들어주면 대통령 아저씨가 암만 '믿어주세요……' 해도 믿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1989년 9월 진미혜 올림

제주 ○○중학교 ○학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선생님께

"이렇게 날씨는 화창한데 나는 간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젊고 희망에 찬 생명이…… 만약 우리가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깨우쳤다면, 내가 죽는다고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오늘은 일요일. 철창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친다. 모처럼 봄별을 즐기며 걷고 있었다. 마지막 잠에서 깨어난 조피는 침상에 앉은 채 그녀의 꿈 이야기를 했다.

"어느 맑게 갠 날, 나는 희고 긴 옷을 입은 아이 하나를 세례식에 데려가고 있었어. 교회로 가는 길은 산 위로 뻗어 있었지. 아이를 팔에 안고 가는데 땅이 썩 갈라지지 않겠어. 영겁결에 나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구해 놓고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 갔지."

그녀는 동료 죄수에게 이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어린애는 우리의 이상이고, 그것은 모든 방해물 물리치고 관철되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이지만,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얼마 후에 그녀의 방도 비워졌고 뒷면에 '자유'라는 말을 흘려 써놓은 공소장만이 남아 있었다.

— 잉계 숲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중에서

선생님, 전 선생님께 구체적인 어떤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친구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는데 모두 선생님의 소식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전 역시 그들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주위에는 늘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9년 8월 12일 선생님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제자 변기연 올림

나라랑 전교조랑 서로 의논하면 좋을 텐데

저는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딴 아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선생님을 뵈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못 나오게 할까 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요즘 국어 수업 시간은 재미가 없어요. 어떨 땐 새로 오신 선생님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가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면으로 만났더라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만을 강조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저희 학급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이번 환경미화에서 제가 고안한 '들어주세요', '낙서난'을 신설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낙서난엔 국어 선생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전교조란 제 생각엔 좋은 면과 나쁜 면의 두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랑 전교조랑 서로 얘기해서 해결지으면 좋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선생님만은 좋은 면에서 앞장서 주세요. 전교조가 두 면으로 갈라지지 않게 말이에요.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새 국어 선생님도 당분간만은 좋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종종 소식 띄우겠습니다.

1989년 9월 13일 저녁에 최수진 올림

추신: 돌아오는 생신 축하드려요.

울면 지는 거예요

여름이 물러가듯이 선생님들의 모습도 이 교정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2교시 도덕 시간에는 새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차렷, 경례!"라는 반장의 구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반장 혼자서 "차렷, 경례"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나중엔 선생님이 포기하셨는지 출석을 부르더군요. 그때 그 선생님 얼굴을 처음으로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 얇게 같은 입, 멀찍하게 큰 키. 선생님 얼굴이 그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옆의 아이들도 하나, 둘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우는 동안 진도를 왜 요것밖에 못 나갔다는 등,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등, 첫 시간인데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못돼먹었다는 등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선생님과 앞으로 반 년씩이나 공부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할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사하러 학교에 오셨는지요? 울고 가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울면 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도 울지 않을게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은 옳은 일이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꼭 이기실 거예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행운과 축복이 선생님들 곁에 머물길 밤마다 하늘에 빌게요.

1989년 9월 첫째날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 김희재 올림

선생님 얼굴이 자꾸자꾸 생각나요

저희는 단식투쟁하시는 선생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점심과 저녁을 굶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참았으나
지금 이 순간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녹음기 틀어 놓은 것마냥 진동을 합니다.

선생님의 은혜

텅텅 빈 가슴속에
수박처럼 알차게 사랑 채워 주신
우리 선생님

텅텅 빈 가슴속에
하나의 촛불처럼 밝은 희망 불어넣어 주신
우리 선생님

그 무엇이, 그 은혜에 보답하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은혜에……

김지운 지음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인숙이에요. 요즘에 선생님께서 노조를 하시느라고 식사를 거르시는 모습을 볼 때에 왠지 모르게 제가 선생님께 죄송한 느낌만 들어요.

노조를 선생님을 위해 벌이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데 정부에서는 노조의 참뜻도 모르고 어린이들과 선생님과를 헤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설마 노조를 한다고 하여 6학년 동안만은 조00 선생님과 같이 지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 왔지만 선생님과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고 선생님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께서 가시더라도 새로 들어오실 선생님을 잘 모시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과 이별하는데 조그만 선물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정성 어린 이 편지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1989년 7월 14일 선생님의 제자 인숙 올림

전 선생님을 이해해요

보고 싶은 김00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셔요?

선생님! 전 등교길에 선생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부풀어서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나타나 주시지 않았고, 전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5반 선생님께서 편지를 나누어 주실 때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뵈지 못한 게 너무나도 섭섭했어요.

궁금함을 꼭 참고 집에까지 와서 편지를 뜯어보니 선생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읽으셔야 하지만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정부도, 교장 선생님도, 문교부도 모두 미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깨달았어요.

비록 저희 엄마, 아빠께서도 교원노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희망을 가지세요.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전 영원히 선생님을 존경하고, 영원한 선생님의 제자예요.

우리 반 아이들도 선생님 곁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면서 선생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어요. 선생님은 저의 자랑스러운 스승이셔요. 건강 잃지 마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요. 그리고 희망도 잃지 마세요.

1988년 8월 25일 제자 수미 드림

추신: 답장을 하시게 되면 사진도 끼워 주셔요.

참교육만큼 건강 관리도 소중해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편지를 일찍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은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빨리 나오시기를 빌겠습니다.

선생님, 요즈음에도 저희들의 참교육을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나요? 참교육도 좋지만 부디 선생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생님이 건강하지 못하시면 그 제자들도 건강하지 못한 법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피서를 다녀왔는데 선생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방학중에 우리 반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 댁을 찾아뵙을 예정인데 전화 드리고 찾아뵙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는 요즈음 방학을 무척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도 배우며 학교 다닐 때에 못했던 일도 하고……

개학을 하면 건강하신 선생님 모습을 뵙게 되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1989년 8월 4일 금요일 김상원 올림

교원노조가 왜 나쁘다는 건지 통 모르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별로 없으셨는지요. 저는 몸 건강히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고 학교 생각도 많이 난답니다. 처음 며칠간은 천국 같았지만 지금은 책이나 읽고 숙제나 하는 지루한 날이 계속됩니다. 시골에 다녀온 일 말고는 아무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어요. 앞으로 8월 달 정도만 있으면 졸업한다는 마음에 책도 많이 읽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어린애라며 끼어 주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제일 싫어요.

선생님, 며칠 전에 선생님 편지 받아 보았어요. 저는 왜 교원노조가 나쁘다는 건지 통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가지고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나라일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일도 크게 보려는 우리나라가 어디인지 분명히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기계라면 우리들은 기름인데 기계가 잘못되면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을 텐데요. 선생님 기운 내셔요. 저희들은 분명히 선생님의 편이어요.

용기 내셔요. 꼭 성공하셔요!

1989년 8월 17일 수요일 전등 밑에서 즐고 있는 선생님의 제자 영미 올림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는데

선생님께

무더운 이 여름을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는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숙제를 안했거든요. 독후감과 만들기밖에 안했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할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깜둥이가 됐어요. 며칠 전에 청주 외할머님 댁에도 갔다 오고 화양 계곡에 가서 수영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너무 까맣게 돼서 창피해요.

선생님은 피서도 못 가셨지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학하면 선생님을 못 보게 된대요. 하지만, 전 안 믿어요. 개학하는 날, 선생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리라 믿어요.

저는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6학년 2학기 산수는 매일 언니한테 배워서 많이 늘었어요. 이제 개학하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선생님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할말이 많아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1989년 8월 17일 유니 올림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6학년 8반은 선생님의 기둥이 될래요”라고 하는 소리, “선생님 힘내세요”라고 한 말은 모두 헛되었군요.

말로만, 말로만…… 행동하지 않은 우리. 정말로 정말로 용서해 주셔요, 네?

선생님, 저희랑 헤어지지 말고 1년, 아니 이젠 몇 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이라도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선생님 힘! 내셔요.

1989년 8월 연희 올림

선생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아주 소중한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6학년 3반의 슬픔, 아니
큰 걱정이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우리 6학년
3반의 어린이를 위하여서 그 노조를 안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조를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잃은 게 더 슬픔이
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모든 면에서 선생님을 존경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이러한 얘기만 했죠. 우리 3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
고 아끼고 믿고 있어요. 선생님 건강하시고 이만 줄일게요.

1989년 6월 28일 선생님을 아끼는 제자 영진 올림

호소문

저희들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 학교를 떠나신다면 저와 뜻있는 아이들이 굳게
몽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몽칠 것입니다.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몽칠 것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1989년 8월 제자 올림

엄마를 설득시킬 거예요

불쌍하신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부르는 말을 불쌍하신 선생님께라고 쓴 이유 아시겠지요? 선생님의 그 모습 요샌 힘도 없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제가 선생님께 무슨 말을 해드려야 선생님이 기운을 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이기는 편이 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 일기장에는 이기는 편, 지는 편……이라고 써놓았지만 지금은 조금이나마 선생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맨 처음 선생님이 월급을 올려 달라시나 하는 생각에 부모님들의 편이 었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편이어요.

하지만 선생님, 1대 48. 학부모님들은 너무 이상해요. 교직원노조 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예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니 수업 끝나고부턴 엄마를 잘 설득하고 싶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시는 어머니가 정말정말 미워요.

선생님 부디부디 몸 건강하세요.

1989년 6월 17일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로부터

승리의 깃발 앞에 선 우리 반이 돼야죠

선생님께

6학년이라는 꼬리표만 가졌지 마음은 1학년, 아니 국민학생도 안된 유치원생인 우리들을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노조 때문에 제 뜻을 말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등교 시간에 아주머니(학부모님)들이 몇 반이냐고 물을 때 저는 마지못해 다른 반으로 말하였습니다. 교실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착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에게 물어 보니 다 나와 비슷하더군요. 왜 학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몇 반이냐고 물었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님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한 선생님 반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직은 선생님이신데 말이에요.

노조에 가입하셨다고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 걸까요? 교원노조에 가입한 선생님은 선생님 취급도 못 받나요?

저는 지금 무척 흥분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 교원노조라는 것에 가입하신 것을 지워 버리면 될 것 아니어요?

저는 오늘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납니다.

교문에 쓰여 있는 6학년 7반이란 숫자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교문 앞에 있는 6학년 7반보다는 승리의 깃발 앞에 있는 6학년 7반이란 숫자는 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공부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 우리 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뎅이 6학년 7반이 되도록 노력해요. 6학년 7반 만세!

1989년 6월 19일 제자 달순 올림

단식투쟁하시는 선생님께 드립니다

한참 장마철인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죠?

저희 5학년 1반을 가르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저희 반에 처음으로 들어온 개학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선생님께서 셋째, 넷째 시간에 저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어찌면 헤어질지도 모른다가에 당황했었고 1학기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정이 한 번에 쏟아질 듯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 할말이 마음속으로 책 읽듯 줄줄 나왔는데, 막상 편지를 쓰려니 말문이 막히고 앞이 캄캄하군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몰랐던 사실 등을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은 저희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단식 투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한 여름방학을 잘 지내라는 등 선생님의 어려움을 숨기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단식 투쟁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점심, 저녁을 굶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참았으나 지금 이 순간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녹음기같이 진동을 합니다. (꼬르륵)

저희는 선생님께서 2학기 때 무사히 출근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행운과 선생님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1989년 7월 14일 선생님의 제자인 김민희, 노혜영 올림

추신 : 선생님께서 단식투쟁중 빈속에 피우시는 담배가 마음에 걸려 저희의 통장을 털어 이 선물을 선생님께 드립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신 우리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1년밖에 안 되고 어제도 만났으니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 오늘 성미 엄마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그 이유를 말하려고요. 아랍이와 나 그리고 현기가 발표를 했는데 모두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 대해 말하니까 우리 반 어린이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기뻐요. 왜냐구요? 나도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모든 어린이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반 어린이들 모두에게 친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들보다 못사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 어린이를 우리와 친하게 하려고 하시고,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 점이 내가 제일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동기여요.

선생님,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궁금하군요. 참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구요? 원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도 언제나 티없이 맑고 씩씩하게 뛰어 놀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해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언제나 우울하게 지낼 것 같은데……

그럼 다음 글은 또 편지 보낼게요. 답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연필 놓습니다.

1989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 현진 올림

추신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고맙습니다.

교원노조가 올바른 것임이 알려질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

몸 건강하셔요? 우릴 위해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이 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전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언제라도 터질 듯한 눈물을 감추며 저는 곳곳이 학교에 다녔어요. 지금은 방학이에요. 선생님이 떠나자 여름인데도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요. 하늘도 우리처럼 선생님의 떠남을 슬퍼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교직원 노조가 올바른 거라고 알려질 거예요. 선생님 빨리 돌아오셔요. 선생님께서 없으니까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께선 밤늦게 돌아오시고 새벽에 나가신다는 것을 1반 선생님께 들었어요. 언젠가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 편지에 제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고요. 우린 모두 선생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빌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만일 9월 2일 개학식에 안 나오신다면 우린 울고 말 것이어요. 이곳은 매미가 맴맴 울고 있어요. 매미도 선생님의 떠남을 싫어서 울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선생님, 상현인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중 나와 진희가 점점, 아니 진희와 나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 건강하시길 빌며 그만 연필 아니 샤프펜슬을 놓겠어요.

선생님 몸 건강하셔요!!!

1989년 7월 23일곽정용 올림

우리가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다가 물러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다리시고 오래 좀 참으세요.

우리가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못 나오게 되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찾겠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세요.

선생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1989년 7월 14일 3학년 5반 이용 올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면 돼요

선생님 읽어 보세요.

3학년은 모두 방학이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만 불행이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노조가입을 하셔서 어쩌면 못 나오실 것 같다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선생님, 노조가입에서 나와 우리 반의 기둥이 되어 주세요.

여름에 더워도 선풍기 없고, 겨울엔 좋은 난로가 없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를 공부시켜 주시려고 노조가입에 들으신 선생님, 선풍기 필요 없어요, 좋은 난로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저는 더욱더 좋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떠돌고, 싸우고, 공부 시간에 장난치고, 숙제도 엉터리로 해온 것이 정말 후회스러워요.

1학기를 좋게 보냈다면 선생님의 좋은 추억이 되셨을 텐데.

방학 때라, 방학 때라가 아니라 타임머신 타고 3월달로 돌아가고 싶어요.

출렁되는 강물처럼, 언제나 깨끗한 강물처럼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 주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 선생님께서 안 나오시더라도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 (아름다운 것들)을 부르며 선생님을 생각할 것이예요.

1학기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저녁노을을 보며 언제까지나 선생님과 공부하던 추억을 기억할 것이예요. 언제까지나.....

1989년 7월 14일 한나 올림

여태까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들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노조 때문에 우리들 걸을 떠나신다고 하신 뒤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선생님, 제발 2학기 때는 꼭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으신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선생님, 다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면 안돼요? 저는 여태까지 선생님처럼 자상하시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은 처음 보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떠나시니까 마음 아프고 선생님 얼굴도 자꾸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제발 우리 곁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책상 줄도 맞추고 교실 바닥도 쓸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이 편지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곳은 친구 집이에요.

제가 쓴 편지가 잘 쓰지는 못했어도 선생님 잘 봐주세요.

선생님 저 이만 연필 놓겠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걱정을 한수 더 줄이세요.

1989년 7월 13일 선생님 제자 권미령 올림

선생님 계실 때는 천국 같았는데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왜 교원노조에 드셨나요? 왜 학교에서 쫓겨나시나요? 저희 3학년 7반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계실 때는 천국 같았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도 3학년 7반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 제가 지은 시 한번 보실래요? 제목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쫓겨나 뭐하시나.

우리 선생님 3학년 7반 생각하시겠지.

우리 선생님 오늘도 한 번쯤 우시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지금 공부하시나.

우리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제 편지 읽고 울지 마세요. 선생님, 할말은 많은데 더 쓰다간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짐 가지러 오실 때 저희들하고 악수나 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89년 8월 28일 제자 최은영 드림

쓸 것은 많은데 눈물이 나와서

선생님께

선생님,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참 슬펐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선생님, 언제나 우리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우리 반이 화목하게 공부하는 걸 바라시는데 우리가 선생님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생님의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3학년 2학기 때에도 선생님이 나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부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쓸 것은 많은데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1989년 7월 15일 박하나 올림

선생님은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신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러볼수록 높아만 집니다.

저는 여태껏 선생님을 이해 못하고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겨우 선생님과 앞으로 더욱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제일 처음 여러 반 선생님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때부터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남들과 다르게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여태껏 어리광만 피웠는데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가 뭐래든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이해해요.

저희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 기쁨을 더욱 키워 나가게 하셔야 해요. 선생님과와는 정말 헤어지기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께 더욱 잘해 드릴게요.

선생님,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엄마가 7월달에 아기를 낳아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만일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항상 밝은 얼굴로 내일 만나요.

1989년 6월 28일 김희영 올림

왜 학교를 안 다니시게 됐는지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셔요?

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나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3학년 선생님이 정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선생님을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선생님 댁에 가서 올 때 선생님이 편지 써주신다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셨지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놀기도 하고, 사먹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학교를 안 다니시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들은 노사분교(노사분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신다고 해요. 노사분교를 해서 그렇대요.

선생님은 안하셨지요?

난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몸 건강하세요.

1989년 7월 14일 기훈 올림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시니 슬퍼요

선생님 안녕하셔요?

전 선생님을 만날 때부터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여워하셨어요.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만난 어느 선생님들보다 더 좋았어요.

제가 나쁜 일을 하면 때려 주시고, 어제 그래서 많이 운 것이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시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시니 무척 슬퍼요.

전 무엇보다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요. 만약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면 한마음으로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그리 할 수 없으니 무척 슬퍼요. 다시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생님 100명을 주셔도 싫어요. 전 선생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희 가르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그중 제가 장난을 제일 많이 쳤어요.

전 선생님을 만나 공부하고 싶어요.

1989년 7월 14일 선생님 제자 봉준 올림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셔요

선생님께

선생님,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 잘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자면서도 울었어요. 선생님의 아이 돌이 어저께였죠. 저희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다시 2학기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꼭 2학기 때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영원히 하나님께 빌겠어요. 선생님, 방학 때 선생님 집에 놀러 가겠어요.

선생님, 우리는 방학 때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안 나오신 전날 재미있게 놀았지요? 저는 선생님과 놀던 일을 생각하고 다시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이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7시 뉴스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희는 영원한 선생님의 제자이고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셔요.

선생님 안녕히 계셔요.

1989년 7월 14일 윤세희 올림

저희가 바보예요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도 안하고 공부할 때 딴 짓만 해서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보였어요. 선생님은 이 버릇을 고쳐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학교에 와보니 선생님 책상이 옮겨져 있어서 이상했어요. 경택이한테 물어 보니 선생님이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서정이와 최은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다음날은 선생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다른 선생님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음악을 하고 있을 때 4반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모두 교무실에 다 갔어요.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고 가는 애도 있고 안 가는 애도 있어요. 하마터면 나도 갈 뻔했어요. 봉준이와 진민이가 울어서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1학기도 끝나기도 전에 헤어져서 슬펐어요. 저는 선생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저희가 바보예요. 저희는 선생님이 가시도록 놔뒀어요.

선생님, 왜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우리들은 선생님이 눈에 보여요. 선생님, 우리들은 선생님이 하루빨리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내일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선생님이 창문을 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을 누가 데리고 가서 우리들은 마음이 상해요. 선생님 내일 꼭 돌아오세요. 또 몸 건강하시고요.

1989년 7월 14일 제자 아라 올림

아버지의 단식 농성

1989년 8월 10일 목 맑다 흐림

요즘은 아버지께서 노조일을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시다. 난 그러시는 아빠가 정말 장하시게 보였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주 옳으신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8월 11일 금요일 흐림

뉴스마다 교원노조가 나온다. 탈퇴 안하면 직장에서 파면시킨다. 난 그 말을 듣고 슬퍼했다. 더구나 울기까지 했다. 우는 까닭은 첫째, 직장을 잃어서 우리가 편하게 못살고, 둘째, 아빠가 위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슬프다.

8월 12일 토요일 흐림

엄마도 아빠도 바빠 우리끼리(동생, 나)만 있을 때가 무척 많다. 어머니께서 챙기고 가신 맛있는 간식을 챙겨 먹는다. 피아노 학원도 안 가서 피아노 연습도 열심히 했다.

8월 14일 월요일 맑다 비

날마다 9시 뉴스, 아침 7시 뉴스에서 교원노조 참교육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떨 땐 우리 아빠 얼굴도 나왔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빠에게 무척 신경을 쓰셔서 요즘은 아프시다. 그렇지만 아빠와 같이 다니신다. 혹시 노조 교사와 각 학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신경을 쓰시나 보다.

'그만두셨으면 좋으련만……?'

8월 15일 화요일 맑음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옛날에 일본에게서 해방된 날이다. 동생은 오늘이 슬

픈 날인 줄 알고 우는 시늉까지 한다. 나는 우스워서 광복절은 기쁜 날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동생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서명을 터미널에서 받으러 다니신다. 참, 오늘이 광복절인데 태극기를 안 달았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겠다.

1989년 8월 16일 수요일

아빠가 충장로에서 가까이 있는 카톨릭 센터에서 3일째 단식 농성을 하시고 계셨다. 가보니 아빠가 면도를 안하셔서 수염을 만져 보니 까끌까끌하였다. 그렇지만 몸은 아주 건강하셔서 옛날과 똑같았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엄마와 아빠를 기어코 끌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1989년 8월 17일 목요일

오늘 갑자기 동생이 어머니에게 '돈까스'를 해달라고 했다.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너무 맛이 있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께서 단식 농성을 하시고 어제 어머니가 기어코 끌고 오셔서 6일쯤은 죽으로 먹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고 물어 보자, 아버지께서 "밥을 안 먹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놀라 난리가 나버린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1989년 8월 19일 토요일

아빠가 탈퇴하지 않아서 아빠가 다니시는(○○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통지가 왔는데 학교에 오지 말라는 통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우리(동생, 나)는 실컷 울었다. 정말 슬프다. 아버지가 탈퇴했으면 좋겠는데 옳은 일이어서 탈퇴하지 않으셨다.

※ ○○국민학교 4학년 7반 오수영의 여름방학 <일기> 중에서

제 4 부 졸업생 편지

선생님, 저희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로 서지 못한 채
식민지 노예교육의 도구가 되어 반공·반북 의식화 교육,
입시 위주의 성적 제일주의 교육으로 역대 독재정권의
국민 우민화정책과 민족분열정책 실현의
선봉에 서 왔던 선생님들이
이제까지의 치욕스런 모습을 떨쳐 버리고
교육의 민족·민주·인간화를 실현하고자 몸부림치시는 모습!
정말이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불행했던 과거,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던 시대, 그때 선생님을 만나 뵈으니 선생님의 존함조차 옮겨 들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가네미쓰' 선생이라 불렀으니 혹 광산 김씨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선생님은 해방과 더불어 자취가 묘연해지셨으니 지금쯤 생존해 계신지의 여부도 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해 계시더라도 어느 사립학교에서 특별히 모셔 가지 않은 한 교육현장에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44년 겨울, 우리 부소국민학교에서 4학년 전체 남학생과 4, 5, 6학년 여학생 전체가 어울려 눈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눈싸움에 동원된 어느 반의 담임도 아니셨으면서, 요즈음 말대로 제3자로서 홀연히 눈싸움에 개입하시어 저희 남학생들을 눈몽기로 마구 때리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선생님이 여자니까 여학생 편을 드는 줄로만 생각하고 별 뜻 없이 도전에는 응전한다는 생각만으로 선생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도망치셨습니다. 물론 슬금슬금 저희들을 약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몇은 선생님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 끈질겼던 대역섯 명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을 쫓아 학교 안쪽 으스스한 곳에 세워졌던 '가미다나(신전)' 옆에까지 이르러서야 선생님은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고-상(항복) 고-상'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순간 선생님의 나직한 그러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 병신들아, 나 말고 일본 년을 때려야지 일본 년을……”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우리 말을 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만약 우리 말을 쓰다가 들키면 교무실로 끌려가 검도용 대칼로 죽도록 두들겨 맞는 판이었습니다. 그 판에 우리를 두들겨야 할 선생님 입에서 도리어 불량한 '조생고(조선어)'가 튀어나왔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일본 년'을

때리라시니 그저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희들의 가슴속에는 무언가 무섭게 치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50대의 용어로는 이게 바로 어린이 선동이 되겠지만 열두 살 전후의 어린것들이 무얼 알겠습니까? 그건 순전히 민족적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구의 입에서인지 모를 '가자!' 하는 우리 말 구호와 함께 별 때처럼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4학년 여자반 담임이던 일본인 여선생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눈싸움이 무승부로 끝난 다음 저희 담임 선생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 왜 그랬느냐고 물으셨을 때, 철없는 저희들은 선생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일러바쳤습니다. 그때 저의 담임 선생님은 우리와 동족이어서인지 무언을 한참이나 생각하시더니 "이꾸라 닛뽀진데모 센세이와 센세이다. 나구레또 이이땃데 나구루 바가가 도꼬 아주까. 곤나 고토와 호까니 샤베루나. 구찌오 도메. 사갓다까?(아 무리 일본인이라도 선생은 선생이다. 때리라고 했다고 때리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 일은 탄 데 가서 지껄이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알았나?)"

그날 이후 학교에서 아무 일 없었던 걸 보면 저희도 저희 담임 선생님도 실정법을 어기고 불고지죄를 범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말을 안 했거나 말을 했어도 부모님들이 입을 다물어 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민족적 본능이 빛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런 선생님과 선생님 세대의 지도를 받은 저희들 50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대나 30대는 그래도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기껏 자리 보전을 위해서 젊은이들 기죽이기에 급급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스승이 속인과는 달리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양에서는 스승을 임금과 같은 반열에 두며 학문을 정치보다 앞에 두고 비록 정승 판서의 권력으로도 묘비명에 감히 '선생'이라는 두 글자를 함부로 새겨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선생님 세대의 제자들은 교육을 정치가 명하는 바에 따라 이익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 주장하니 도대체 선생님은 그때 무얼 하시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스승의 봉사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모범을 따라 공익에 봉사할 줄 아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승이 된 것을 인생 낙오의 표본이 된 것으로 여겨 제자들에게 스승의 실패를 거울삼아 스승보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도록 가르치는 한풀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인 현자는 한결같이 참봉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라 했고 공자님도 제 몸을 죽여 인(仁)에 이른다 했으며 석가모니도 몸을 불살라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보다도 정의가 소중하다는 뜻이고 자기 이익보다는 인류의 공익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익을 가르치는 스승도 걸으로는 감히 정의를 배척하지 못하고 단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를 주도하는 50대는 내놓고 정의를 버려서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인간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하다 하여 핍박까지 합니다.

비록 성경에 '밀밭의 가라지를 뽑지 말라'(마태 13~29) 하셨으나 그건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밀을 뽑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록 이상과 정의에 대적해도 하느님이 이를 놔두시는 것은 사람의 판단력과 자유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상주의는 말살돼야 한다니 그 논리는 누가 가르쳤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설마 '일본 년을 때려' 하시던 그 기백 있던 선생님께서야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 현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범이라면 악법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도대체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아 보지 못해서 누가 이런 걸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의 독배가 어디 실정법을 따르는 행위였습니까? 그건 실정법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영혼불멸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을 믿으면 자연 정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영생설은 육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독재자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의 독재자도 영혼불멸설을 법률로서 금지한 것인데 소크라테스는 그 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영혼불멸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고 마침내 독배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독재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독배형을 선고한 것은 실은 소크라

테스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 탈옥시키려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야만 '소크라테스 자신도 상생설을 믿지 않고 도망쳤으니 상생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선전할 수 있고 그로써 독재체제는 계속될 수 있겠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소크라테스의 감옥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감옥 주변에 옥지기를 세워 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감연히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즉, 그로써 소크라테스는 법이 금하는 영혼불멸설에 대한 자기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르겠다고 한 것은 그때 독재자에게 매수된 제자가 탈옥을 청원한 데 대해 이를 거부하는 뜻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 참으로 악법도 법이라 하여 지킬 생각이었다면 그는 독배를 마시지 않고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영혼불멸설을 철회하고 다시는 실정법에 관하여 영혼불멸설을 선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준법행위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긴 해방된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바 그중에서도 교육을 황폐화한 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교사 양성은 하지 않고 학교만 증설한 군정당국의 문교정책을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는 하나의 대학밖에 없어서 일본인 교수들이 빠져 나간 실정에서는 하나의 대학도 유지하기 어려웠는데도 군정당국은 무수한 대학을 신설했습니다. 결과, 대학 교수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는데 그 수요를 군정당국은 중등 교사로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중등학교도 운영할 수 없게 되다가 많은 중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요는 국민학교 교사로 충당했습니다. 또 많은 젊은 교사들은 교직을 버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자리는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 검정으로 뽑아 충당했습니다.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일제 때 저희들에게 '조생고' 쓰지 말라고 꽤나 들볶던 '가네야' 선생(그분도 김씨일 것입니다)은 해방이 되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혼시켰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깐 일본말 쓰면 반역자다. 다시는 일본말 쓰지 마라. 와갯다가? 이거 버릇이 돼서 그만 실수했다, 허허허……"

그분도 해방과 함께 교감이 되어 나갔으니 아마 전국(1948년) 전에 교장이

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거기다가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에서 많은 피난민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진짜 선생도 있었지만 가짜 선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정당국은 그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간단한 신분증만으로 월남 교사들을 각급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교사 충원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시골로 내려갈수록 사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도시 명문학교가 생기는 동기가 됐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위에서 내려보내는 교안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식 교육밖에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도 학교만 졸업하면 그만인 반납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저희 세대가 사회의 주도적 위치에 있을 때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즉 미군정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오입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러 백로같이 고고하셨던 선생님들은 자연 교단을 떠나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셨다면 그때 목숨을 던져서라도 싸우셨어야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8·15 후 잿더미가 된 동경에 진주한 미군은 성한 건물을 찾아 동경대학 건물을 군 막사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때 대학 총장이 감연히 탱크 앞에 나가 이렇게 호통쳤다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군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패전했는지 모르겠다."

이 보고를 받은 맥아더는 무식한 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예하 미군에게 학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인데, 그 진부에 관계없이 그런 기백으로 싸웠더라면 미국은 우리 교육을 결코 황폐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물러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상록수)의 주인공처럼 교회에서, 혹은 사랑방에서, 또는 골방에서 학교에서와는 다른 교육을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하기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 싹이 날 수는 없으니 오늘의 20대나 30대가 하는 참교육 운동이 그런 씨앗으로부터 나온 새싹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중에는 혹 남을 해치지 않는 이가 있지만 그들도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몸바칠 생각은 못합니다. 그것은 그때 깨끗하신 선생님들께서 초야에 숨으신 모범이 뇌리에 박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 세대가 참으로 민족을 사랑했다면 그때 숨지 말고 땀땀이

싸우는 모범을 보이셨어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라도 이 땅 어느 곳엔가에 아직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여생이나마 그때의 용기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목숨보다는 정의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참교육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또는 이상을 위해 가족과도 불목하고 사회의 질서를 받으면서 몸바쳐 싸우는 젊은 활동가들의 희생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참교육이 이루어져 저희들 자식 세대만이라도 저희들같이 비굴하거나 무력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일에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저희들 세대를 버리셨던 선생님 세대가 해야 할 유일한 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내 용감하시기 바라면서 못한 옛 제자가 삼가 올립니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오택근 드림

사랑과 믿음의 교실로

지난 8월 초순경 선생님을 뵙고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의 공간적 이동과 그 원인이었던 이 사회의 기만과 위선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는 무겁고 슬픈 생각이 들어 제 심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로 돌아왔었습니다.

맨 처음 대학에 들어서 호기심과 흥분 어린 눈길로 보았던 외침의 현장, 어느 투철한 선배로부터 느꼈던 당혹감, 그리고 고민, 방황들…… 이제는 산만했던 지적 욕구를 집중시키고, 밑바닥까지 충실해야 하는 저의 미래를 가늠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감히 역사의 전위에 서고 싶다는 소망을 품지만 아직도 민족·민중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일이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회의를 떨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차라리 인간다움을 위해 타성을 물리치고, 때문에 고통 겪어야 했던 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냉소적일 수 없다는 양심의 가르침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이며 비인간적 세계를 고발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자기 다짐과 변증을 견지한다면 결코 제가 두려워하는 안이한 지식인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 항상 성숙해져야겠다는 내면의 욕구를 느끼곤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에게 올바른 꿈을 심어 주시려 애쓰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들은 소중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 치의 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드러나는 참됨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은 진실을 강조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세차게 창을 두들기는 매서운 바람과 폭우에 웅크려두고 감혀 있는 듯하지만 이 두 발만은 이 땅에 굳건히 디디리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꼭 사랑과 믿음의 교실로 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8월 28일 인진아 올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저희들 곁을 떠나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노태우 정권의 기만적 민주화 조치로, 아니 해직된 선생님들과 재야 민주세력의 투쟁의 결과로 복직되신 지 일 년 만에 다시금 마각을 드러낸 독재에 의해 또다시 교단에서 밀려나신 선생님께 제가 그동안 안녕하셨냐는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는, 1985년도에 한 학기를 담임해 주셨던 제자 유형석입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해 극악한 박해와 탄압과 회유와 이간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작년 교사협의회 집회나 이번 전교조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뵈 수 있었던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로 서지 못한 채 식민지 노예교육의 도구가 되어 반공·반북 의식화교육, 입시 위주의 성적 제일주의 교육으로 역대 독재정권의 국민 우민화정책과 민족분열정책 실현의 선봉에 서 왔던 선생님들이 이제까지의 치욕스런 모습을 떨쳐 버리고 교육의 민족·민주·인간화를 실현하고자 몸부림치시는 모습! 정말이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한반도의 교육의 주체이신 선생님들이, 40만 교사들이 뚝뚝 뭉쳐 일어설 때에만 열악한 교육환경도, 제반의 교육 모순들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전교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항상 역사의 한 순간에 선생님의 참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면 부끄럼 없는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선생님들의 집회에 제가 불쑥 나타나 선생님을 뵈 수 있었을 때, 선생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동지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할 때 저는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외치시는 교육만이

참교육이라는 것을.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이를 고양시켜 주는 교육, 민족분열의식을 혁파하고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교육,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존경으로 만날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더 이상 미제와 예속군사파쇼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즘 학생운동도 각 정파를 초월하여 전교조 사수투쟁의 깃발을 내걸었으며 오늘 21일, '사제 만남의 날'을 기해 전대학에서 동시에 전교조 사수를 위한 집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은 결코 청원운동을 무너뜨릴 수 없고,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도 투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일염원 45년 9월 21일 유형석 올림

우리는 모든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여상은 1989년 7월 13일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을 보낼 수 없다는 반월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총학생회 의결에 따라 서명운동을 해나갔으나 외부 압력에 의해 7월 25일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출석 거부로 8월 2일 2차 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걸 사랑하고, 불의에 타협 말고, 더불어 살며, 항상 우선적으로 참다운 사람이 되라시며,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에게서든 유린당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10여 년을 삶과 보람의 터전으로 삼아 오신 이 교정을 어찌 이리도 매정히 떠나라 하시며, 선생님들의 순수한 열정을 '교사 개인을 위한 이익단체'라며 무참히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반월인들은 모였는데, 모여드는 재학생을 사진 찍고, 찍혀 나온 재학생들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전화통신으로 학부모님들을 불렀으며, 취업 혜택 없다, 퇴학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시니 비가입 선생님들의 이 언동이 과연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시는 처사인지, 우리에게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선생님이 없고 어느 한 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이리도 이 어린 가슴들에 피멍을 안겨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월 2일 무산되자 7일 또다시 3차 징계위원회가 열림을 알고 우리 졸업생과 재학생이 6일부터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입 선생님들께서는 잔뜩 긴장을 하셨는지 교문으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시비조로 나오기가 일쑤였으며, 10시 20분경 박용규 선생님께서 교문 밖으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수위 아저씨가 "이 학교 교사야? 못 봤으니 나가!"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학교 오신 지 5개월이 좀 지났지만 설마 출퇴근하시는 모습도 못 봤을까요?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더니 결국 이들은 이사장의 허수인답게 "이 학교는 이사장의 것이야 알겠어?"라며 외쳐댔습니다. 학교를 찾는 졸업생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야 임마 어딜 가. 야 새끼야 어딜 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 자식들이"라며 선생님으로서는 너무 민망한 말들을…… 교문 앞에 비가입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졸업생 중에서 이 선생님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옆에 계시는 교협 선생님께 비가입 선생님들께서 샷대질을 하시면서 "임마, 니가 시켰어? 너 죽어 볼래? 어디 와 있는 거야!"라며 시비를 거셨습니다. 참 우스웠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일까요?

자는 등 마는 등 밤의 어둠은 가고 새벽이 올 때 우리도 이제 몇 시간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며 바짝 긴장했습니다. 날이 밝아지고 오전 6시 50분경이 되니 약 250명이 넘는 재·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일단 나와 2명의 졸업생이 3반을 나눠 작전을 짰습니다. 어느 반이든 한 반은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5~6분을 기다리다 "들어와!"라는 신호로 일제히 교무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물론 이사장실 양가의 삼면 복도는 우리가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서 지난밤 이미 널판자로 못을 쳐놓았습니다.

"밀어. 밀어"라는 고탍소리에 일제히 "선생님 열어 주세요. 제발 막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선생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약 30분 후 9시가 넘으니 교장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답니다. 비열한 선생님들. 우리 또 두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반은 2층 복도에서 교무실 복도로, 못질은 되어 있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위해 밀어붙이자며 넘어지는 후배와 선배들은 서로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고 나갔습니다. 교무실 복도 앞은 선생님들로 수라장이었고 교문에서 들어오는 현관문 입구는 잠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안타까웠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는 재학생들이, 또 졸업생 후배들이 차마 선생님을 밀치고 교장실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교무실 입구 문을 손으로 두들겼습니다. 김용택 선생님께서 보시고 열어 주려고 달려오시는데 거대한 괴물같이 덩치도 큰 송철규 비가입 선생님과 성함도 모를 선생님이 길을 막으시며 밀치면서 치며 잡아끄는 걸 보고, 아니 존경하는 김용택 선생님이 내 눈앞에서 구타당하는 걸 보고(내 눈으로 보기엔) 발로 유리창을 깨고 조금의 피를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는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라며 뛰어들어갔고 "이젠 됐다. 명랑아 됐다. 그만해" 하시는 분임 회장 박정규 선생님의 말씀을 뒤로 흘리며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교장실을 점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밀고

또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돼. 밀어. 나 좀 밀어” 하는 나의 말에 주춤하던 제 학생들은 일제히 나를 밀었고 들어가는 도중 내 앞에서 세 분의 선생님이 넘어지는 걸 보고 서무실 벽에 손을 짚고 그분들을 얼른(선생님 밑에 후배들이 깔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쳤습니다. “밀어라, 애들아, 나를 밀어라.” 교장실에 들어가보니 언제 연락했는지 학부형도 오시고, 벌써 우리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제 저녁 학교 간다는 말을 듣고 오셨는데 나를 민노라 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남은 것은 없고, 우리 선생님께 드릴 좋은 선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랍니다. 아! 맥빠져.

교장 선생님은 거창의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였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징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거창 교원노조 선생님들께서 탈퇴서를 거창 교장 선생님께 비밀에 부치고 냈기 때문이라며 우리 학교 교원노조 선생님도 탈퇴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민노라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녁에는 여동생을 때리시고 나에겐 조용히 얘기하셨습니다.

“학교 일은 그만둬라. 부모를 택할래, 선생을 택할래?” 이유인즉 아버님이 학교에서 나가실 때 비가입 선생님들께서 아버님을 따라가 얘기를 나눴답니다. 비가입 선생님 왈, “어찌 한차례 때려서라도 데려가시지 않고 그냥 가십니까? 따님이 저를 물고 뜯어서 이 상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밑에서 이층에 있는 따님을 부르는데 반말을 하지 않습니까. 와, 멀라고. 뭐 니가 뭔데 나를 부르노 등등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빨갱이의 물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 저희 아버님께서 민노라 하신 걸 후회하시고 아예 우리 가정은 그날 이후 풍비박산이 되어 부모와 자식간이 비열한 선생님의 폭언으로 하여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이러니 저희 어머니는 며칠째 눈물입니다.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며 여동생은 아버님과 대화도 안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질 따름이고요. 전에는 어떤 일이라도 아버님과 자주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노조일에도 제 얘기만은 들었는데 이젠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전교조합법성 쟁취로 후배들이 참된 교육을 받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선생’에 대한 거부감을 떨치고

8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난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적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3년 중 2년을 선생님과 한 학교에서 지냈지만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그럴듯한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늘 서운하게 생각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을 통한 선생님과 첫 만남, 그리고 전교조를 통한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각인으로 인해 모교에 대한 뚜렷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며 그리고 힘겨운 투쟁 속에서 버티고 계실 선생님에 대한 송구한 걱정도 가져 봅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 외의 모든 인연이 끊어져 버리고 심지어 ‘모교’라는 말이 가지는 어떤 그리운 감정들조차도 가져 보지 못했던 그러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새삼스레 단 한 분 선생님을 통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까닭은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절실히 바랐던 형태의 학교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크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세상을 적게 알수록 본질적인 옳고 그름을 동물적 본능으로 알아낸 다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까지 선생님과 가난하고 공부 못 하는 학생은 절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으로 알았고, 간간이 들리는 제자에 대한 스승의 헌신적 사랑에 관한 신문기사나 뉴스는 마치 침침한 밤에 켜는 텔레비전의 현란한 쇼프로에 나오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연예인 같은 감정, 그저 낯 놓고 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만 불러일으켰답니다. 처음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전근오셨을 때 애들 사이에 퍼졌던 소문——이상석 선생님 애들한테 굉장히 잘해 주신다더라라는 말들도 제가 가진 감각들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학교생활은 현상에 대해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제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의 개발을 통해 삶의 올바른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돈호법·인용법·직유법·은유법 따위의
치장을 한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아무 필요도 없었습니다.

참고서에 획일적으로 인쇄된 이육사의 저항은 어린 마음에도 정권에 대한 막
연한 저항만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 본능적으로 솟구치
는 느낌들이 저항해야 할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억압당하는 상황을 강요받았던
모든 학생이 의식을 통해 신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감각을 통해 흡입한 것
은 상처뿐이었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
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을 좀 가깝게 알았다면 이런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
됐을 것이며 제게 뿌리 깊이 남은 '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도 한층 얽어
졌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의 제가 저야 할 자신에 대한 책
임감도 아울러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교조를 통해 제
주위에 참스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한 본능적 아집이 진정
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대학입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만 그때 당시는 집안 사정도 여유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 실력이 대학을 가기
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큰 다행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제
가 졸업을 하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학교 때 알아서 생활에 적용했다면 얼마
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들도 이제는 모두 없어질 테
지요. 선생님, 많은 아픔 못지않게 큰 희망도 공존한다는 데서, 또 선생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제가 부러워하는 후배들이 그들의 동물적(가장 순수하다는
뜻인 줄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능으로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든
든한 현실에서 힘과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달라서 운동의 양상도 노동운동이 모든 운동 형태의 집결지였던 것에
서 탈피하여 각자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운동의 본질적 목표인 '인간해방'
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전환됐기에 대학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직까지 학과를 정해 놓진 못했지만 사회과학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
님,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며 댁내에 사랑과 용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어져 살아온 45년에 김미숙 드림

더 큰 기쁨과 해방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상석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어울리지 않는군요. 지난 30일 부산대에서 있었던
졸업생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때 오지 않으셨더군요. 그날 행사에 대해선 별
써 들으셨죠. 선생님을 지키고자 하는 졸업생들의 작은 모임마저 무산시키려
는 저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전 두 번 울었습니다. 부대 교문에서의 전경의 저지. 들어가야 하는데,
친구들이 동지들이 기다리는데, 같이 외쳐야 하는데, 나도 함께 노래 불러야
하는데……

아무리 사정해도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
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전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를 통해. 법대 건물에는 백골
단이 와 있었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전교조를
사수하겠다는 줄·공·대·위는 독재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성식을 무사
히 치렀습니다.

원천 봉쇄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학우가 모였을 텐데.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전교조 사수!' 교내 시위가 시작되었습니
다. <교원노조가>, <동지여 내가 있다>, <동지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학우들의
뜨거운 그리고 하나된 선생님의 사랑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서클 회장 선배님이 전교조 서명지를 나누어 주시더군요. 연합회에
서 온 거라며 서명을 받으라더군요. 오늘 동아리 방에서 한 친구가 "아무도 서
명 안 하려 한다. 전부 전교조에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답답했어요. 전교조가
선생님들을 위한, 그것도 임금투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친구가 "난
전교조가 옳은 것 같기는 하지만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 고 1, 3 때 담임 선
생님이 잘렸다. 좋은 선생님이신데" 하며 전교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 봤습니

다.

전 이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열을 내며 교육의 3주체, 학생·교사·학부모의 제자리 찾기, 인간화 교육, 민족적 교육, 통일지향적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환경 개선, 교과서 내용의 왜곡 개선, 게다가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더불어 사는 삶'……

전교조는 결코 계급간의 미움과 분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며 좌경·용공이 아니며 공산혁명단체가 아니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석 선생님이 늘 이야기해 주시던 것,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참교육 여름학교' 때 이야기해 주셨던 어느 국민학교 여 선생님의 이야기, "내가 해직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갑자기 담임 바뀌어 놀라고 아파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안 때리는 사람이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으며 또 울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고 끝내 친구들도 울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세상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타의에 의해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것, 보내기 싫은 선생님을 억지로 떼어놓는 것, 선생님을 돌려달라 외치는 학생들의 순수함을 매와 징계로 대응하는 것,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전교조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기니까요. 어둠은 빛을 이겨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련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큰 기쁨과 해방을 위한 기간일 겁니다.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뜻을 이루어 내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실 겁니다. 선생님 힘들죠? 힘 빠질 선생님도 아니겠지만……

"선생님, 밥 마이 묵고 힘 챙기소. 알겠지예?"

맨날맨날 선생님과 전교조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 염원 45년 9월 1일 손혜영 올림

성스러운 현장에서의 투쟁

진작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국운동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룰 '전국교원노조' 설립에 감동 어린 기쁨과 존경을 표합니다. 간혀 있는 관계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안타깝습니다.

청주·청원 지부장님이신 도종환 선생님께서 이곳으로 오신 지도 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지도 구심인 도 선생님의 안부를 전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 맞은편에 계시는데 그리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교원노조 설립 투쟁에 최대한 지지·지원하려는 얘기를 수시로 당부했었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미결수라 신문은 허용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밖의 일들이 걱정되는 일들뿐이라 안심이 되지 않아 그리 편하지 못한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노조 가입의 단순 가담자도 징계하겠다는 노 정권의 이야기가 벼랑에 서서 발악하는 목소리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 발악에 선생님들께서 받으실 고통을 생각하니 더욱 새롭게 굳은 결의를 하고 '교원노조' 사수 투쟁에 다시 한 번 힘차게 펼쳐 일어나 달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전체 민족·민주 운동세력은 여러분들의 장거에 박수를 보낼 것이고 역량껏 지지·지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성업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육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성스러운 현장에서의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참교육 실현의 장에서 곳곳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권력의 이권에만 치부해 오던 교육 속에서 온갖 비리를, 정의로 호도된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마침내 참정의 실현에 펼쳐 일어날 때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반미 구국항쟁 45년 7월 3일 충북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드림

책 속에 파묻힌 정의를 향해 출범한 전교조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우리들의 계절 감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느 때와는 달리 지내셨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진작에 문안을 여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탄압당하시는 지금에야 보내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신문 광고란에 있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에 선생님 성함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하는 당연스러움은 확상 시절 저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선생님 인품에 대한 확신이 빛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조간 신문을 펼쳐며 아침을 서두르다 저는 순간 멈춰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OO상고는 직위해제된 이 학교 교사 한OO 씨가 정상 출근함에 따라.....' 몇 번씩이나 착잡한 마음으로 읽은 그 기사는 그날 하루를 온통 선생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베틀이 맨 차림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선생님의 소박한 모습과 농구장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같이 농구하시던 그 모습 속에서 친형과 같은 친근감을 느꼈던 저희들에게 가장 재미있고 인상에 남은 시간이 윤리 시간이었음을 선생님께선 아시는지요? 그 시간은 종치는 소리가 오히려 아쉬웠던 유일한 수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의 일이었겠습니다만 소위 동창회장이라는 어느 장성 군인이 강당에서 하던 연설 말입니다. "몇 년 전 북한에서 미군을 도끼로 쳐죽인 그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에 쳐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던 그 장성 군인의 연설 내용을 철었던 저희들은 별 느낌도 없이, 아니 오히려 그랬으면 통일도 되었을 거라는 그 군인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힌 채 듣고 있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선생님께선 그날 첫시간에 들어와 전쟁의 파괴성

과 비인간성 그리고 그런 식의 유아적인 통일론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저희들을 정화시켰던 일이 지금까지도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뚜렷이 기억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시사와 밀접한 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단원만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며 저희들에게 들려준 어느 일화, 즉 얼마 전 그 단원에서 하던 수업 내용을 어느 학생이 파출소에 고발하여 불러 가셨다던, 그래서 간첩으로까지 오인받을 뻔하셨다는 그 얘기는 저희에게 충격과 분노를 넘어 자괴심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치밀어오른 그 '고발 학생'에 대한 분노는 결국 어디에 꽂아져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은 사회를 좀더 알고 난 후부터입니다.

하여튼 저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장 철저히 관찰시킨 그 윤리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의 고뇌를 그 이후에야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비판조차 학생의 감시 속에 허용되지 않았던 질곡의 교육현실 속에서 그것을 고쳐 나가려는 실천적 몸부림이 지금에서야 전교조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진정 '스승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진실과 왜곡, 탄압과 투쟁, 지지와 반대 등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이제 전교조는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정의를 향해 출범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왜 참교육이 필요한가를..... 어둡고 암울했던 폭정의 시대를 뚫고자 일어섰던 지난 6월의 민중들을 보며 "아유! 저런 것들을 왜 군인들은 가만 놔두지?" "나라 망했군" 하며 개탄하는 친구들, "대학생 지내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데모를 하나"며 빈정거리는 친구들, 냉소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군에 입대하여 더욱 굳어져 가는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전교조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할 여지도 마련되지 않은 우리들 최대의 거점이라는 것을 더욱 확인합니다.

피약벌에서 단식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힘찬 구호 그리고 경찰에게 비참히 끌려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오히려 진한 감동과 진실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참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들 중 한 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저희는 저희를 아는 모든 이에게 선생님을 자랑스러이 얘기할 것입니다.

선생님! 지난 1월경이었던가요. 노원역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신 것을 기억

하시고 계신지요? 학교를 나온 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무척이나 고맙고 기쁘더군요. 그리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생활이 궁금하시겠군요(사실 밝히기가 쑥스러운데……).

저는 지금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연세가 내년으로 환갑을 맞이하시지만 아직껏 힘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돕는 와중에도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는데 정작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워낙 해놓은 공부가 없어서인지 무척 힘이 들더군요. 그러나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국문과를 지원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학벌이나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요즘 들어서 전교조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도덕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과 상의해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거리로 내몰려져 있는 지금에 이러한 생각은 차라리 사치이더군요.

선생님! 이제 남아 있는 계절은 스산함과 차가움으로 치닫습니다. 이럴 때 거리로 내몰린 선생님이 더욱 염려됩니다. 저의 졸업이나 선생님께 다소 힘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군요. 아무쪼록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참스승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참노동자로서도 사랑합니다.

1989년 9월 3일 선생님의 안녕과 전교조 사수를 간절히 염원하며 제자 최해범 올림

큰 메아리를 울릴 때까지

혹시 하고 평소에도 가슴 졸이며 지냈는데 편지를 받고 보니 제 예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이란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을 핑계삼아 편지 한 장도 못 보내 드렸던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신 선생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견고 계시는 그 길이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셔서 가시받길 거널던 그 고통이 이렇게 지금에까지 우리 주위에 가해져야 한다는 이 사회현실이 너무 미워지네요.

선생님! 이제야 저희에게 바보가 되라고, 참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시던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선생님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용기만은 잃지 마세요."

선생님! 굳이 사회현실이 어떻고 정치가 어찌고 하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한때(아니 지금도 변함없이) 정치를 해보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벌리던 제 자신이 무척 회의스럽기만 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성적대로라면, 올해 안에 S대 경제학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점수를 낮춰서 Y대 경제학과를 가기엔 제 성적과 실력이 너무 억울하고……

재수를 해서라도 목표 대학을 들어가서 큰뜻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큰뜻을 펼치기 위해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Y대라도 쉽게 들어가서 대학 4년을 이력저력 보내다가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도저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내적·외적 여러 상황 때문이었는지, 친구들 따라가서 술도 마셔 보고, 울어도 보고, 뜯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도 해봤지만,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 결론에 지금은 그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그 고민으로 다 날려 버리고, 도리어

그 결과 실력은 더욱 퇴보해 버린 느낌만이 들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 하소연하려고 편지 쓴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사회가 이리다가 어디까지 굴러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향세를 겪는 경제성장률, 길이 끊겨 버린 수출, 경제 불황, 물가 상승, 정치 부재, 폭력, 인신매매, 퇴폐, 향락산업, 마약, 강도, 무분별한 통일 논의, 서로 자기 잘났다고 우기는 정치…… 정치가들은 그들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또 전교조 문제는 아예 뒷전에 내버려 둔 채 자기들 정책에 이용하려고만 혈안이고, 선거나 뭐니 밀입북이니 또 공안정국이니……

선생님! 우선 당면문제에 처하신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루빨리 모두 정상화가 되어서 다시 교단에서 함박 웃음을 머금으시고 활기차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가 대학 시험 끝나고 찾아갈 때면 수고했다고 제 어깨 두드려 주실 그 선생님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들도 눈을 뜨겠죠? 그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그들도 원래는 착한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지금은 비록 자기만의 이익에, 또 당리당략에 현혹되어 있는 그들이라도 언젠가는, 아니 하루바삐 그들도 참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겠지요.

그 약하신 몸에 괴로워하실 선생님 모습을 그려 보니 너무 가슴 아파요. 다 견어치우고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이 못난 놈의 이 심정을 선생님 아시죠?

〈상록수〉라는 노래가 그렇듯이, 또 〈선구자〉라는 노래가 그렇듯이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는 꼭 희망찬 미래가 우릴 반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 고난을 꼭 참고 이기셔서 내일의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닥쳐오지 않도록 꼭 이기세요. 깨치고 나아가 꼭 이기셔야 해요.

선생님을 믿겠어요! 선생님의 그 참뜻을 그들에게도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루빨리 커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의 그 큰뜻에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할게요. 선생님, 괴로우실 때면, 저희들을 생각하세요. 이 못난 제자들이지만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활짝 웃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뭐라고 지껄여도 내 뒤에는 내 사랑스런 제자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어떤 고통과 시련을 준다 해도 내 뒤에는 그것들을 깨부술 내 제자들이 있다.” 선생님, 이렇게 소리치세요.

선생님! 이 편지를 쓰면서 그깟 고민에 고민하고 방황했던, 그깟 갈등에 자학하고 용기를 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선생님! S대는 Y대든 우선 지금 당장은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 노력한다고 해서 전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해볼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약속드릴게요. 선생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겠다고 약속할게요. 또 노력할게요.

선생님! 오늘 밤엔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해보렵니다. 선생님과, 또 같이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또 비단 전교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곳에서 무자비한 군정의 시퍼런 총칼에 짓눌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렵니다.

비록 이 기도가 그들에게 어떤 큰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마음마음이 하나로 뚫뚫 뭉쳐지면 꼭 큰 메아리를 울릴 거예요.

선생님! 전 이런 훌륭한 분을 제 선생님이로 모시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1989년 8월 25일 제자 재욱 올림

더 이상 정권의 안보용으로 머무를 수 없어

날씨가 무척 덥군요. 휴가다 휴일이다 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편안한 휴식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예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낭만적이고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현대인의 감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웬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더군요. 선생님과 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만에 선생님의 모습을 뵈었지만 선생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식농성을 한다는 보도를 듣고 선생님들의 참교육에 대한 열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교육을 진실로 희망 있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선생님들의 뜻에 정면으로 가로막는 정부당국의 탄압과 협박 그리고 주위의 시선으로 걸으려는 전교조를 탈퇴해야만 되는 선생님들을 보고 선생님은 그래도 계속 끝까지 남아 있으리라 믿고 있었지요.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아니 민주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기 위해 저도 모르게 명동성당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엔 전경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또한 정부당국에 바치는 의지 또한 대단하다는 걸 보고 무더운 날씨가 기온 탓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노란색 티셔츠 차림으로 질서정연하게 모여 가족들이나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의 공연을 보고 웃는 선생님들의 눈은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러 이리저리 둘러보다 천막 밑의 땅바닥에 앉은 비닐만 깔고 링게르를 맞고 누워 있는 선생님들을 보고 전교조는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불이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라면 거기에는 그만큼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꼭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라면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환한 얼굴로 맞

아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나는 대화는 참으로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 암흑을 헤쳐 보자고 온갖 고통을 받으며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서 힘껏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2학기말에 붙어 교과서를 모두 떼고 잠시 시간을 내어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상송보다도 몇 배나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씩 단식을 해서인지 외면상 지쳐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찾아오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보고, 전교조는 선생님들만의 투쟁이 아닌 온 국민의 투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지난 시대의 잘못을 청산하자고 외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선 더 이상 청산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산하자고, 청산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우선 잘못된 교육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라고 당부하고 그 부모는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있으며, 그 자식이 이제부터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 받기 이전에, 또 용서받았다고 한숨쉬기 이전에 그 부모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반성해도 부모가 고쳐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식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선생님!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왜 우리들의 선생님들을 말 안 듣는 짐승 다루듯 전경들의 손에 끌려가야만 되고 갖은 협박과 고통, 시련을 당해야 하며, 그동안 못한 보충생활을 해야 할 여름방학에 왜 여기에 모여 단식농성을 해야만 합니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정권의 안보용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막강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송과 언론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진정한 정의만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펼칠 수 있는 희망 있는 교육을 학생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선생님과 헤어지기가 무척 서운했습니다. 밤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기운이 없어 조금밖에 배움을 못 가겠다는 말을 듣고 누가 우리의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마구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환한 선생님의 얼굴을 다시 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9년 8월 23일 용매 올림

선생님들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편지를 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교원노조 때문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은 서글픈 추억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현재 학교교육현실은 참인간을 만드는 전인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분야, 특히 입시 공부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많은 저희들의 급우들은 단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경쟁사회에서 그들을 밟고 일 어섰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소외되면서도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가 참교육을 가치로 하여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올바른 비판적 안목을 이루겠다고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조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을 떠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사님들께 징계조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직접 노조에 가입하지는 못하지만 노조가입 선생님을 심정적으로 동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모교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 거의 모든 졸업생들의 관례였습니다. 이것 또한 모교를 졸업한 저희로서는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교에 대해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있습니다. 저희를 참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한량없는 이해와 포용을 바랍니다.

1989년 7월 선생님을 존경하며 모교를 사랑하는 30기 재 서울대 동문 일동 올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제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지금의 상황으로까지 치닫해 되었는지 가슴 아프고 허망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절망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니 저 같은 여성과 우리 노동자들은 (또 다른 노동자) 기쁨과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5공화국을 민주사회로 배운 여성이지만 모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지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독재권력과 그 밑에서 치부하며 역사를 분노케 한 이들과 현 노태우 정부도 먼 훗날 역사의 기록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도, 부자이지도, 대학의 높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만 참된 삶이 무엇이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루하루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소박한 여성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마음 잃지 마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크나 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생님들의 정신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원노조 결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 배움의 터에 씨와 싹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보잘것없는 서신이 도착하게 될지 그리고 읽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런 세상에서 나의 자녀가 살게 된다면 전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세계의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인간화 교육', '민주교육', '민족교육'을 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정치부터가 '거짓'이 아니니까요. 선생님들 화이팅!

진실을 사랑하는 여성 노동자 드림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작열하는 태양을 온 가슴으로 받았던 지난 며칠은 제게 있어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삶의 싹이 터움을 느꼈습니다.

생존권은 박탈당해도 양심의 자유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참된 의지를 배웠고, 이제는 갈등과 방황의 길을 떠나서 제 자신도 '참'과 '올바름'의 일관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섭니다.

대학 1, 2학년 때는 사회현상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선배나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졸업 후의 생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주 진보적인 친구의 견해에 보편성과 객관성이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와는 동기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제게 설득력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억제할 수 없는 감동으로 며칠 동안 진정한 방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찾지 못해 안타가워했던 보편성과 객관성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보고인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교원노조 가입자 6천 명을 모두 해직시키겠다는 문교부장관의 정신 나간 폭탄선언 때문에 전 당황했었습니다. 힘의 위력이 아직껏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선생님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구요.

대학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뭐 해먹고 사나?"

지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투적인 말을 빌리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이러한 진리의 말을 믿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싸워 주시길 바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의 더욱 가열찬 투쟁을 기대해 봅니다.

공자의 '덕'을 요즘에는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해 내고, 따라서 덕의 가르침을 교육으로 정의 내렸던 것을 '정치이념의 올바른 인식'이라 말하더군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올바른 정치의식이야말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생활의 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사건 공화국.' 하루아침에 백 명 정도가 죽어 가고 새로운 사건들이 솟아나는 것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그 관점의 바탕에는 바로 중·고교 시절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의 가치관의 기틀을 제공해 줘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기성세대와 선생님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요? 또 저는요? 그리고 참교육을 외쳤던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는요?

오늘은 단식을 푼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죠. 약 2천 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을 전부 해직시키고 새로운 교원을 임용한다구요?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오릅니다. 이 시대의 교육은 또 6공의 시너를, 하수인을 길러내는 것입니까?

"나는 군대도 없고 재정도 없으며, 교육제도도 없소. 내게는 오직 나의 '증오'가 있을 뿐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나의 증오를 무장해제시키지 않겠소."

며칠 전에 읽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호지명이 프랑스 사절단에게 한 말인데 웬지 와닿는 게 있어서 적어 봤습니다. 우리의 증오는 바로 혁명의 시작이요, 의지의 열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박받는 자들에게 살길은 증오와 떼땀한 자아의 모습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겠죠.

선생님,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연락이 없군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전화 한 통으로 거처를 알려 주셨음 좋으련만. 혹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을 만든 놈을 만나서 크게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한판 싸우고 싶어요. 더럽고 거지 같은 세상. 누구는 몇억의 해외여행, 누구는 호화판 음식점에서 한 그릇에 몇십만 원짜리로 살찌우고, 정치는 개판, 국민만 우롱, 참과 정의의 외치면 좌경이고 용공인 세상. 손수레에 생명을 맡긴 자들은 교활한 방법의 압박으로 신음하는 세상.

분명코 우리들의 세상은 주객이 전도된 살맛 안 나는 세상.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자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牌坊받는 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겠죠. 기름기 흘러넘치는 아이들의 옷깃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번지르한 자가용의 뒷모습을 응시하면서 어떠한 부러움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없는 우리들의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있는 자들은 그만큼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을 부딪치면서 느꼈습니다. 가난은 죄도 아니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죠. 다만 생활이 약간 불편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들의 오만과 특권(?)을 깨부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해방, 자유……

실천하지 않는 양심은 위선이라지요? 그러나 아직은 배우는 학생이니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작은 것을 소중히 아끼며 앞날의 보다 넓은 꿈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야겠죠.

선생님, 제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철학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 오랫동안 그들을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힘이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음 정리 잘 하시고 웬만하면 제자 걱정 덜어 주시는 셈치고 연락 주십시오.

1989년 8월 6일 제자 영준 올림

OO대학 3학년이 국민학교 은사님께 보낸 편지

신문에서 선생님 소식을 듣고

이준영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 2월 OO국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OO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담임하셨던 4학년 10반의 일원이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선생님 앞에선 늘 주눅이었던 여학생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인사 편지를 적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작년 1988년 여름 우연히 신문지상에서 선생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계신 교육자다운(제 나름대로,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운'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곧장 연락드리려 했는데 마음먹은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로 모실 때 저 역시 국민학교 선생님이 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육은 기초부터 착실히 쌓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국민학교 저학년 때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예쁜 후배들을 튼튼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다고 너무 나무라시지 마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1989년 8월 제자 올림

확실한 승리의 날을

확실한 승리의 날을 장식하자면 형형색색의 깃발들도 휘날려야겠지요. 지독히도 처절했던 투쟁의 날을 대변이라도 해줄 것처럼 온 하늘을 나무끼는 깃발들의 난무…… 굶소리 치며 어설피게 구부러 보는 어깨춤, 그것들이 지금 목터져라 부르짖으며 들어간 배의 힘을 다시 추스려 일어서시려는 선생님들의 꿈꾸던 날의 열려질 첫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녕 그 큰날의 빛은 얼마만큼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원망이 쌓여만 가는 무차별한 징계조치…… 정말이지 꼭 그 빛만은 찬란하게 비춰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문지상, 텔레비전 등 각종 매스컴에서 모든 소식을 종합하여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자신에 찬 목소리를 짧게나마 듣게 되어서 마음놓였습니다. 분남이의 가슴 벅찬 목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구요. 더 크게는 모든 식구들에게 자랑만 늘어놓았던(학창 시절 및 지금까지) 분들의 형상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큰일을 하시는 선생님은 결코 비굴하지도 않으셨고—많은 귀엣말 등 따위—앞날의 설계에 대한 어정쩡한(가난과 생활에 대한 압박) 모습도 보여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대의 중년 된 한 인간의 올바르고 제것에 대한 미친 듯한 몸부림에 저는 아주 행복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결코 영웅심리가 아닌 바른 것, 제 몫을 찾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부여된 목숨(육체)까지 소멸시켜 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영광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좋은 날들이 절실하게 과거의 아픔을 내재하고 있음에 반드시 이 '빛날 날은 오고야 말리라'라고 믿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너무도 많은 사건들로 시끄럽고, 목을 졸리우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형체가 미치도록 원망스럽고 초라해서 안쓰럽기도 하건만, 쉽게 버리지 못한 까닭은 지금까지 끊어지는 가슴을 안으면서까지 바르고 정당함을 위해서 싸웠던 무수한 분들의 존재, 그 존재

들이 이끌어 가는 이 바다에 의해서 덮쳐져 버릴지도 모를 왜소한 나라는 반드시 밝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때문입니다(국민학교 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아주 멋진 나라라고 배웠는데, 전 너무도 터무니없는 배분되어진 땅 때문에 한동안은 몸살까지도 앓았습니다).

수마에 의해 떨어져 잘리워져 간 제방의 드러난 황토 살점들도 차츰 감추어져 가고 있는 이곳 시골은 매미 소리가 온 여름의 열을 갈라놓은 듯합니다. 가끔씩 울어대는 매미의 충실함에 피식 웃음 날리며 먼 하늘에 눈을 줍니다. 선생님의 투쟁하시는 모습 그리기도 하고, 전교조에 가입 못한 선생님들의 입장도 그려 보고, 확실하게 우리의 현실은 가입 못한 선생님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표출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 수업하시기는 껍이나 어렵겠지요. 이 허실 많은 구조에 싸여 배우고 익힌 학생들의 앞날과, 영원한 진리이고 참된 스승이신 분들의 실추, 그것들은 다시금 이 썩어만 나라의 원망과 뒤섞여져 울분되지만, 이미 저네들끼리 할 것 다하는 이 모순 많은 나라에 시린 가슴으로 작은 소망만을 남겨 둡니다.

선생님! 어찌지도 못한 저는, 이 가을의 조심성 없는 방문에 낙엽이 질 때까지만이라도 다시 교실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참, 세상은기가 막힌 거 같아요. 천재의 요절이며 자유를 갈구하는 목마름에 칼을 대는 엄청난 일 등……

모든 집안 식구들의 안녕과 정신적·육체적 선생님의 건강과 바라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빌면서 두서없이 흘린 글을 거두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1989년 9월 제자 올림

큰 수확 있기를 바라며

엊그제 저희 학교 대자보에서 우연히 선생님의 성함이 자그맣게 칸을 차지한 것을 보고 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저녁상을 대하면서 텔레비전에 비친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저희 집은(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산 근처 백마라는 데 있습니다. 자그마한 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오랜만에 따라나서 봅니다. 3시간의 노동이지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십니다. 소출을 많이 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콩포기 하나, 옥수수 가지 하나가 당신의 분신처럼, 자식처럼 느껴지시는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학력이 전무하십니다. 그렇게 말려도 농약을 푹푹 씹니다. 그래야만 곡식들이 병충에 시달리지 않는다면서요. 비록 농약은 무섭지만 그보다 곡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작금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선생님들을 억압하고 파면시켜서만이 안타깝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의 발로를 당국은 코방귀 뀌며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 교육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 예상되어 슬퍼집니다.

모쪼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시길 바랍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마주 대한 오늘 저녁 식사같이 선생님의 괴로운 싸움에서도 큰 수확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먼 후일 모교를 찾았을 때, 5층 교실에서 빙그레 웃으시며 맞아 주실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1989년 8월 4일 1986년 졸업생 올림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한마음 되면

청명한 가을 하늘이 서럽도록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좀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디까지나 제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듣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지난번 전교조 기금마련 전시회 때는 수척해 보이던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마음 같아선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군요.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쳤다니 꼭 다행입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선배님들이지만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만은 부자일 거라 믿습니다.

매스컴에서 전교조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보곤 해요. 생활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전교조에 관한 의견을 타진해 보는데 당사자가 아니어서인지 대부분 시큰둥해요. 그리고 전교조측의 홍보보다는 정부측의 홍보를 더 많이 알고 있더군요. 대화를 하면서 '역시 시간이 흘러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본의 아니게 교단을 떠난 수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불법단체로 몰아 강경 탄압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참교육을 갈망하는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한마음 되면 꼭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분서주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시금치 많이 드세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구요.

1989년 10월 10일 권분남

인지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 모음 1

선생님, 사랑해요

발행일 — 1989년 11월 20일

엮은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펴낸이 — 최동진

펴낸곳 — 동광출판사

주 소 — 121-110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한국출판협동조합 206호)

전 화 — 편집 716-5686 · 719-5174

영업 719-5006 · 715-6889

등 록 — 1978년 8월 20일 제 1-102호

가 격 — 3,000원

* 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참교육 실천을 위한 소설집 ①

탁류 속을 가는 선생님들

이오덕·이상경 엮음

식민지 국가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일제에 편승한 교육제도의 모순과 이를 심화시키는 온갖 부패상들을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파헤쳐 오늘의 교육현실을 반추해 보도록 하는, 엄홍섭·이기영·송영·현경준·이근영 5인의 장·단편 문제 작품집!

참교육 실천을 위한 소설집 ②

(근간)

유시춘·이은식·강병철·이상락·이남희 지음
전·현직 교사작가 5인의 현장감 넘치는 신선한 목소리!
교육현장의 문제에 비수를 들이대어 그 모순과 비리를 날같이 파헤치고, 학교사회라는 독특한 세계를 뛰어난 문장으로 형상화한 이 시대의 화제작!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모음 ①

선생님, 사랑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빼앗긴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믿음과 사랑, 뜨거운 응원을 실어 띄워 보내는 학생들의 편지모음집.
국민학생들의 천진하고 앳된 목소리에서부터 중·고등학생, 졸업생들의 성숙한 목소리까지, 교육문제에 대한 날카롭고 진솔한 비판과, 선생님에 대한 걱정어린 애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참교육 실천을 위한 편지모음 ②

큰 사랑의 터를 가꾸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교사들이 제자·동료교사·가족·학부모에게 보내는 사랑과 양심의 편지모음집.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에의 열정과, 고난을 헤쳐 나가려는 굳은 의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면면이 배어난다.